

- trols for wholesale line rental, unbundled local loop and relative services”, 2008. 5
- [2] _____, “Wholesale Line Rental: Reviewing and setting charge ceilings for WLR services”, 2006. 1
- [3] _____, “Local loop unbundling: setting the fully unbundled rental charge ceiling and minor amendment to SMP conditions FA6 and FB6”, 2005. 11
- [4] _____, “Review of the Wholesale Local Access Market”, 2004. 12
- [5] 김남심(2005), “Ofcom, BT의 액세스 사업부문 조직분리 결정”, 정보통신정책 제17권 제18호, 2005. 10. 1

라오스 통신시장 현황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주임연구원 홍승연
(570-4084, syhong@kisdi.re.kr)

1. 개요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인구 600만명에 전체 국민 소득 약 30억 달러 규모의 전통적인 저소득 농업 국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00달러 수준으로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정보시스템의 부족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주변국들의 완만한 성장세 회복과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라오스 경제는 2001년부터 5%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는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정보시스템 부족으로 ASEAN 국가 내에서도 정보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다.

1997년 ASEAN¹⁾에 가입한 라오스는 ASEAN 역내 국가들 간 ICT 인프라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e-ASEAN 이니셔티브²⁾에 따라 ASEAN의 정보통신 연구 개발

- 1) 동남아 국가 연합으로 라오스를 비롯하여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지역협력체이다. ASEAN의 회원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이루어져있다.
- 2) ASEAN 국가들은 정보통신 발전을 통한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00년 ASEAN 정상회의를 통해 e-ASEAN Framework Agreement를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ASEAN 정보인프라 구축 촉진, 전자상거래 촉진, IT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투자 활성화, 능력배양 및 정보사회 구축을 통한 역내 정보격차해소, 전자정부 구축 촉진 등이 있다.

노력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중장기 경제사회개발 계획³⁾ 등을 통해 통신망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⁴⁾

2. 본 문

가. 통신시장 일반현황

최근 들어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최신 통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003년도에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 350 달러에 유선 전화 회선수가 1% 겨우 넘는 정도였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약 600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동전화 보급률이 25%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⁵⁾

〈표 1〉 라오스 통신시장 일반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구(백만명)	5.53	5.68	5.79	5.92	6.06	5.86
1인당 GDP(US\$)	330	338	434	485	575	606
100명당 전화가입자수	2.12	3.21	4.82	12.04	18.19	26.85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1.00	1.98	3.53	10.77	16.67	25.23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0.27	0.33	0.36	0.42	1.16	1.71

자료: ITU ICT Statistics Database, 2008. 6

2001년 이후 라오스는 Lao Telecom 독점시대를 마감하고, 통신시장에 경쟁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시장에 비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발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까지 라오스에서는 우정통신 건설부 MCTPC⁶⁾ 산하 EPTL(the Enterprise de la

3) 2006년 발표된 제6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 계획은 안정적인 경제발전, 경쟁력 제고 및 국제통합능력 향상, 빈곤 퇴치 및 고용창출, 산업화와 근대화를 위한 사회경제 인프라의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수출입은행(2006. 8)

5) 최근 개도국들의 통신시장 발달 양상에서 유선 시장을 건너뛰고 바로 이동통신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의 유선전화 회선수는 1.62%로 2003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6) Ministry of Communications, Transport, Post and Construction

Poste et des Telecommunications Lao)이 라오스의 국영 통신 사업자였다가 1995년에 우정 통신 기능을 분리하면서 ETL(the Enterprise des Telecommunication Lao)이 라오스의 국영통신기업이 되었다.

이후 라오스 정부는 1996년 10월부터 태국의 Shinawatra와 합작 투자로 라오스 정부가 51% 지분을 소유하는 Lao Telecom(Lao Telecommunications Co Ltd)⁷⁾이 등장하면서 라오스의 국영 네트워크를 장악하게 되고 ETL⁸⁾은 폐지된다. 그러나 2001년 ETL이 100%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고 지금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하던 라오스 통신시장이 경쟁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ETL이 유선통신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시작하면서 라오스의 통신시장에는 여러 통신사업자들이 진입하게 된다. Millcom의 Tango⁹⁾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라오스 국방부 소유의 통신사업자인 LAT(Lao Asia Telecom)는 2003년부터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중반부터는 Sky Telecom이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면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라오스 통신정책 현황

2001년 4월 라오스 국회에서 라오스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이 채택되는데 통신법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통신규제 담당부처가 단일 부처로 분리되면서 라오스 통신 발전의 한 획을 긋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라오스 통신시장 발전에서 중요한 변화중 하나로 2007년에는 우정통신건설부 MCTPC에서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 규제기관인 우정통신청 ANPT¹⁰⁾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라오스의 우정통신청인 ANPT는 총리실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라오스의 정보통신 및 우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ANPT의 주요 업무는 정보통신 및 인터넷, 규제정책 부문의 중장기 계획과 전략 수립, 우정 통신 사업자 허가, 전파 정책 조정 및 감시, 허가 업무, 통신 기기 및 설비 수출입 허가 및 투자 감독, 우정통신 표준화 업무 및 통신부문의 국제 협력 업무 등이다.

2002년 후반부터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지원 가운데 라오스 정부는 통신부문의 규제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일본 정부의 지원가운데 2002

7) Lao Telecom은 현재 태국의 Shinawatra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2021년 라오스 정부로 나머지 지분을 다시 반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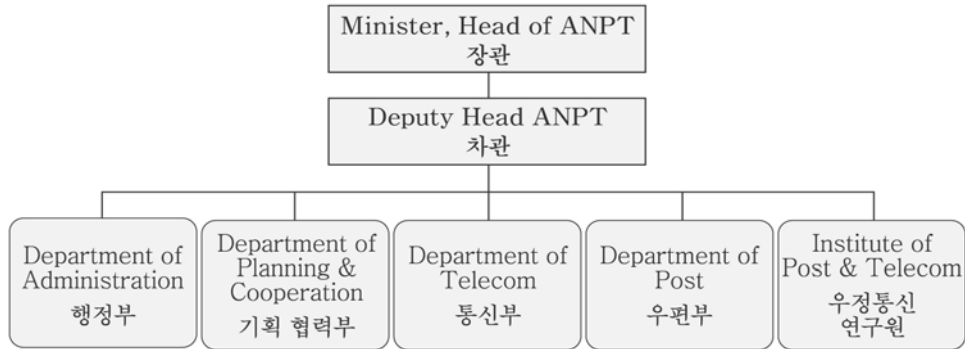
8) ETL은 Enterprise of Telecommunications Lao로 명칭 변경

9) 2007년에 Tigo로 명칭이 변경된다.

10) Autorite Nationale des Postes et des Telecommunications(or National Authorit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년 말에는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수정안이 마련된다.

(그림 1) 라오스 ANPT 조직도



다. 유선통신시장

라오스 통신시장의 주요 사업자 중 먼저 Lao Telecom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6년 라오스 정부 51% 및 태국계 업체인 Shinawatra 49%의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Joint Venture)으로 설립되어 이전 ETL의 모든 자산이 Lao Telecom으로 이전되고 ETL은 운영을 중지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 5년간 국영기업으로 인터넷 사업을 제외한 국내외 전화서비스, 공중전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된다. 그러다가 Lao Telecom의 독점 계약이 만료된 2001년 10월부터 라오스 정부는 본격적으로 통신사업 부문의 확대를 위해 시장경쟁 활성화 및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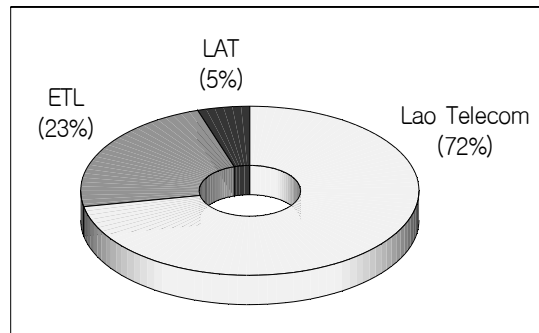
이미 2000년 8월, 라오스 정부는 100% 정부소유인 ETL을 재창설하게 된다. 이는 Lao Telecom의 시장 독점계약 종결 기간보다 12개월 앞서서 나타난 중대한 변화로 라오스 정부의 Shinawatra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TL은 중국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주요 통신사로 자리잡아 2005년 말 라오스 전체 통시시장의 10% 이상인 8,000여명의 유선 가입자와 40,000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7년 말까지는 약 400,0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된다.

ETL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비슷한 시점에 군부 소유의 LAT(Lao Asia Telecom) 설립이 추진되어 2003년 말까지 2,000여명의 유선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2006년 말에는 5,000명으로까지 유선가입자가 증가한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LAT 51% 대 베트남의 VietTel이 49%의 지분소유로 Star Telecom이라는 합작회사로 변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라오스 주요 통신기업들의 라오스 유선통신시장의 점유율은 2007년 현재

Lao Telecom이 72%, ETL이 23%, 그리고 LAT가 5%씩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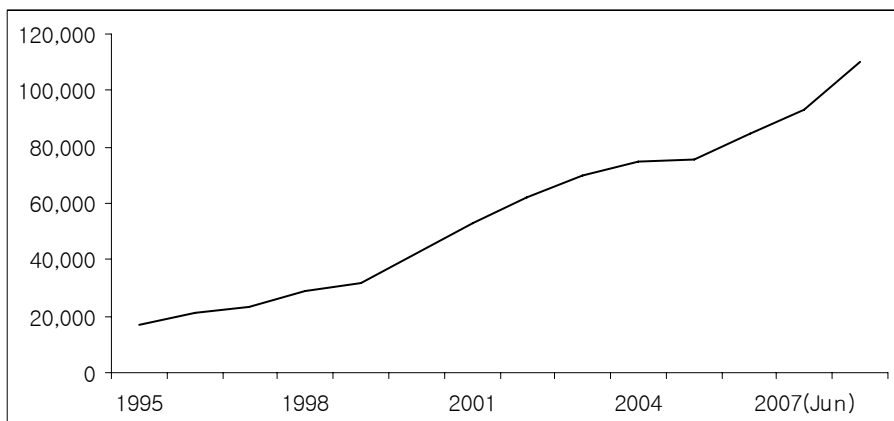
[그림 2] 라오스 유선통신시장 점유율 현황(2007년)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Laos Telecoms Market Overview, Statistics & Forecast

라오스의 유선전화 회선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1만 7천 회선수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2007년에는 10만 회선수를 넘어서게 되면서 12년 만에 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라오스 유선전화회선수 증가 추이(1995~2007년 6월)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Laos Telecoms Market Overview, Statistics & Forecast

라. 이동통신 시장

라오스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1993년 EPTL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나 AMPS⁽¹¹⁾ 시스템을 이용하여 품질이 좋지 못한 관계로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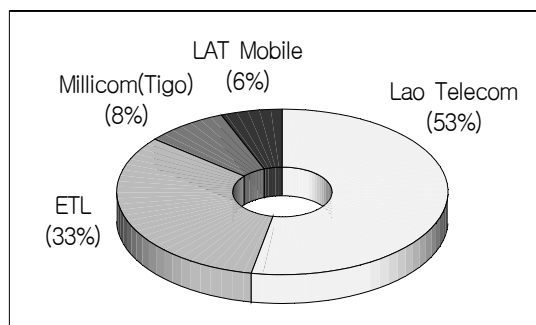
을 넘기지 못하고 GSM서비스에 밀려나게 된다. Lao Telecom에서는 1993년 역시 수도 비엔티엔에 제한적으로 GSM 900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2001년 국영 통신 기업으로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ETL은 중국의 자금 지원 가운데 비엔티엔과 사바나켓 지역의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2003년 초부터는 전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국영기업인 LAT는 2002년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초에는 수천명의 가입자만을 확보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2003년 4월에는 네 번째 사업자이자 민간 서비스 업체, Millicom이 Tango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GSM 900과 GSM 1800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민간 이동통신 사업자로 Sky Telecom이 있다. Sky Telecom은 다른 이동통신서비스와 달리 CDM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로 2008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Lao Telecom과 ETL은 모두 선불전화카드(prepaid)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Lao Telecom의 공격적인 마케팅 결과 2003년 말 선불전화카드 형식의 서비스는 Lao Telecom이 90%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통신시장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Lao Telecom이 53%, ETL이 33%, Millicom이 8% 그리고 LAT Mobile이 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 라오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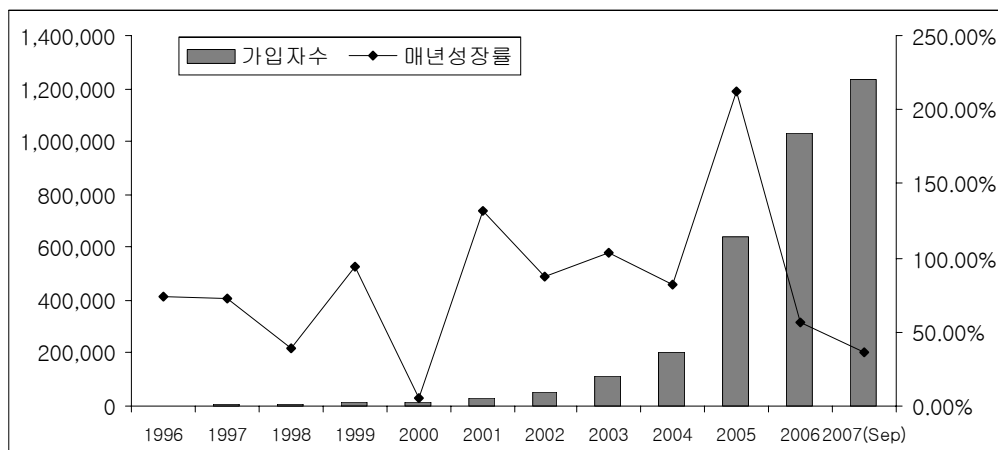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Laos Telecoms Market Overview, Statistics & Forecast

11)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2003년 초에 들어서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수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수를 추월하면서 라오스 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시장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림 5) 라오스 이동통신가입자 증가 추이(1996년~2007년 9월)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Laos Telecoms Market Overview, Statistics & Forecast

마. 인터넷 시장

라오스의 인터넷 서비스는 1998년 LaoNet¹²⁾이 수도 비엔티엔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9년 후반 LTC에 의해 LaoTel Internet 사업이 시작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는 Planet Online이 라오스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진입한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LTC가 인터넷 시장에서도 역시 가장 지배적인 사업자이다. 2007년 말까지 약 10개의 인터넷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으나 6개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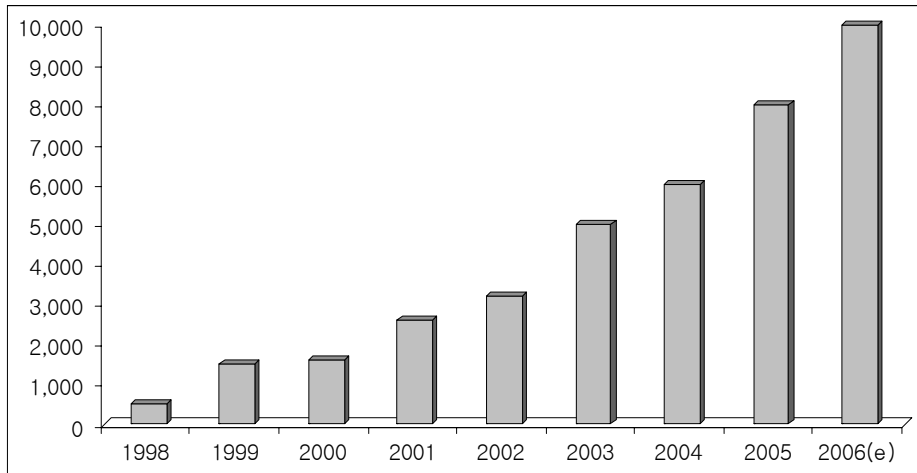
라오스의 인터넷 서비스는 주로 비엔티엔 시내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해외 배낭여행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터넷 카페의 지역주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말 인터넷 가입자가 약 5천명 정도였었다가 2007년 3년 만에 그

12) 후에 GlobeCom으로 명칭 변경

13) 10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는 STEA, ETL Internet, Lao Telecom, Champalao Internet, Lanexang Internet, Sky.Telecom, KPL(ex GlobeCom), Planet Internet, Unicom, MLL.com이 있으며 이중 Champalao Internet, Lanexang Internet, Unicom, MLL.com은 허가만 받고 아직까지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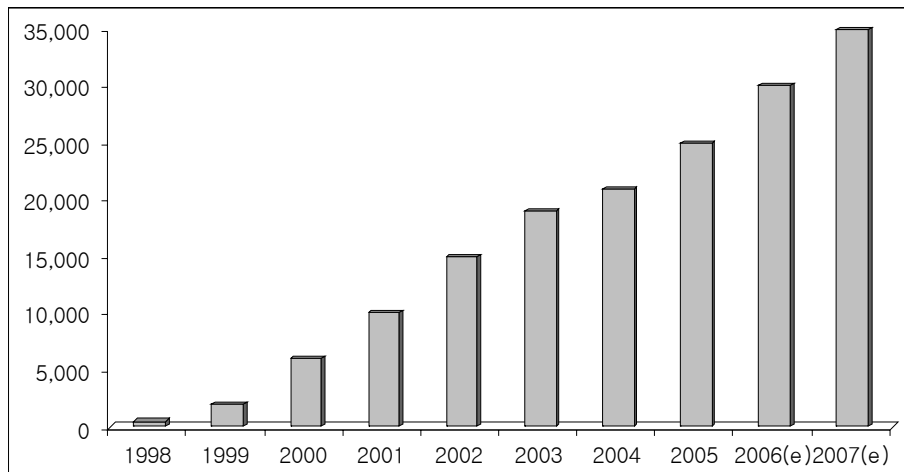
두 배인 만명으로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3만 5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라오스의 인터넷 연결은 무선인터넷이나 ADSL보다 다이얼 업 형식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6) 라오스 인터넷 가입자수 증가 추이(1998년~2007년)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Laos Telecoms Market Overview, Statistics & Forecast

(그림 7) 라오스 인터넷 사용자수 증가 추이(1998년~2007년)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Laos Telecoms Market Overview, Statistics & Forecast

3. 결 어

라오스는 아직 정보통신 관련 정부의 전략 수립이 빈약하며, 농촌 및 산간 지방 등에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미비로 인해 국가 정보화 정책 등이 시행되는 데에도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라오스 정부는 아시아 개발은행 및 세계은행을 비롯한 개발은행과, 주변국들의 지원과 협조 하에 정보통신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라오스 비엔티엔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한 것을 비롯하여 라오스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정보통신 교육을 추진하고나 중고 PC보급,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통신정책 자문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라오스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부의 적절한 규제 정책 추진을 통한 통신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급격한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은 라오스 통신시장 발전의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1] '라오스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6. 8
- [2] '라오스 Country Report' 수출입은행, 2007.
- [3] '라오스' 『IT현황 리포트』, KADO, 2007.
- [4] 'Lao Telecom 소개자료', Lao Telecom, 2008
- [5] 'Laos-Telecom Market Overview, Statistics & Forecasts', Paul Budde, 2008
- [6] Palami Phommathansy, 'Telecommunication Network Based on ICT Infrastructure', u-ICT 포럼, 2007.
- [7] Snith Xaphakdy, 'Improvement of Telecommunication Sector Governance and Performance in Lao PDR', 2008.
- [8] www.itu.int/ITU-D/ict/statistics